

파주시, '코로나 팬데믹 730일' 기록을 담다

차량형 이동선별검사소 운영·긴급생활 안전 지원금 지원



1, 3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장 2 파주시 코로나19 백신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여만 인 지난 5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포스트 오미كرون 시기로 접어들면서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량형 이동선별검사소'를 제작 운영하고, 백신 접종 때는 키오스크를 활용한 예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심을 살폈다. 시는 '시민과 함께한 파주방역 730일'이라는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그간 일어난 일들과 파주시의 대처, 계획 및 지침 등을 담았다.



2

감염을 막아라

마스크 53만여개 특별공급·집합제한 행정명령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유입되면서 한 달 만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다. 파주시는 공적 마스크가 판매되기 하루 전인 2월 27일부터 마스크 1만1천 매를 자체 공급하고, 3월 6일까지 KF94 마스크 총 53만2천900매를 하나로마트, 축협 등 34곳을 통해 특별 판매했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업무 과중을 지원하고자 공무원 등 2천



3



4



4, 5 승차 진료 검사 선별검사소 및 차량형 이동선별검사소 운영 5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 도입 6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

214명을 약국 현장에 투입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해 순면 수제 마스크 3만 개를 제작해 취약계층에 배포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시는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선제적으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2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8월 16일부터 2주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등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9월 3일부터 11일간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내·외 음식물 섭취 금지와 더불어 대형 커피점은 시간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확산을 예방하라

차량형 이동선별검사소·키오스크 예진 시스템

2020년 2월 3일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로 업무를 전환하고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다른 지역 확진자 유입으로 늘어난 검사 건수는 승차 진료 검사(드라이브 스루형)를 병행했고, 도보형(워

킹 스루) 검체 부스도 추가로 운영했다. 3차 유행이 시작된 12월에는 운정과 문산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지난해 8월에는 외국인 확진이 늘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광탄에도 선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차량형 이동선별검사소를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 농촌 및 교통 취약지를 찾아가는 등 파주 전역을 순회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검사 시행을 알리고, 업체별 검사현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검사를 받도록 했다. 차량형 이동선별검사소는 3개월 만에 파주시민 1만4천215명이 검체 검사를 했고, 5명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성과를 냈다. 신속한 접종을 위해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접종 지연과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예방접종센터에 '키오스크 예진 시스템'을 도입했다. 접종 전 수기로 예진표를 작성하는 대신 키오스크에 인적 사항 및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입력함으로써 예진표 작성 시간을 2분 이내로 단축한 것이다.



1 파주시청사 2, 3 금화초·영도초 학생들이 보낸 응원 편지와 부채

그 결과 급감했던 전통시장 매출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시작했고, 2020년 4월 439억 원 긴급생활지원금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면서 전통시장 이용객이 20% 증가했다. 상가별 평균 매출액은 크게는 60%로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웃음이 되찾았다. 5월 2차 긴급생활 안정지원금까지 지급되면서 누적 대상자는 89만4천939명(1차 43만9천944명·2차 45만4천995명), 평균 지급률은 96.7%를 기록했다. 지원금 중 894억 원은 '음식점·식품 소비'(69%)에 주로 쓰였고, '의류·뷰티·잡화'(10%), '병원·건강'(5.8%), '문화·레저·도서'(4.8%) 순으로 사용됐다.

경제를 살려라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카드수수료 지원

시는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자 '비상경제대책반'을 중심으로 무너져가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했다. 평균 매출 60%가 급감한 전통시장과 43.2%로 줄어든 관광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직접 지원했다. 일반·재난 예비비 160억 원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대응을 했다.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 기업은 '특별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총 50억 원의 특례보증도 지원했다. 지역화폐 월 한도 확대 및 할인 기간 연장으로 골목상권도 지켰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 100만 원씩 총 50억 원을 지급하고, 특례보증·이자 지원 총 80억 원과 이자 차액 지원도 했다. 전통시장이 많은 파주는 특별 방역은 물론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시는 1인당 10만 원씩 보편적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체 시민을 대신해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진심이 통했다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

시는 지난 2여 년간 보건 취약 계층인 복지시설 이용자, 어르신 및 장애인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어린이집·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과 특별 지원을 했다. 위기 가구 8천509곳에 69억 원을,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 3만99세트를, 사회복지시설에 4억 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각각 지원했다. 또 해외 입국 자가격리 전담반·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운영, 비대면 농산물 축제 개최 등 전 분야에 걸친 방역 및 경제 활성화 지원책은 시민의 마음을 울렸다. 초등학교의 격려 글이 담긴 부채부터 감사 편지가 담긴 간식, 기업체의 폭염 대비 물품 기부, 시민단체의 방역 구호 차량 기증 등 70여 곳에서 지원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백서가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비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면서 "백서는 공공기관과 파주시 곳곳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⑦



파주 시티투어

Paju City Tour



파주시티투어 예약 및 문의

홈페이지 : www.pjcitytour.kr

문의전화 : 02-730-0531